

이정호의 《노인정 산조》에 나타난 노년 여성의 정체성*

박선애**·김정석***

<Abstract>

Park, Sun-Ae & Kim, Cheong-Seok. 2012. *Issues of Identity of Old Woman visited through the Novel "Blues of Senior Citizen's Center (No-In-Jung San-Jo)" by Jung-Ho Lee*. The rapid population aging and issues of old age have much attention from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Interest in elderly people and concern on their problems has also reflected in various forms of liberal arts. More recently, novels of old age has put its lights on the lives of and in old ag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novel depicts identity in old woman with the case of "Blues of Senior Citizen's Center". Its writer, Jun-Ho Lee, who entered old age herself tries to describe the identity as an old woman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Majority of main figures in the novel are women in old age whose daily lives ar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observers. In particular the writer through the focal narrator 'woman in Apt, Number 301' illustrates autonomous life in old age. At the same time, this woman objectifies her neighbors bearing eyes on the others. The writer considers the woman as a case of successful aging.

On the surface, the figures are in the similar situation. They live in the same apartment complex and sharing social status. Nonetheless, their lives differ by conflict with family members in different generation, psychical and psychological aging, economic independence. There appears clear differentiation among the elderly women in their community.

Despite its success to deliver differentiated lives of women in old age, the novel is not free from the critics that it lists many different facets of problems in old age. It does not gain full insights into the mentality and consciousness authentic to old age. Furthermore, by limit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elderly women, it fails to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38)

** 제1저자, 동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박사급연구원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hold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covering their past.

주제어: Appellation(명명법), Intergenerational conflict(세대 갈등), Aging(노화), Identity in old age(노년의 정체성), Successful aging(성공적 노화).

1. 머리말

2000년 초반부터 한국 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서구 사회와 같이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생활환경의 변화, 전통적인 가치관의 해체가 가져온 가족 규범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대응해 나가지 못하는 노인 노동력의 문제, 이로 인한 사회적 역할과 경제력의 상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늙음보다 젊음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노인 소외 현상들이 목격된다. 이런 노년¹⁾을 둘러싼 주변성들은 중층적으로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노년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문화적 차원에서 노년은 그 문화의 핵심적 가치의 실현으로부터 소외된 이질적인 모습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의 여성화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노년 여성은 노년기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노년 삶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노년의 타자화 대상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본고는 최근 문학 안에서도 노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군의 작가들이 윤리적 감각을 되살리어 다양한 차원으로 작품화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문학 연구에서 노년문학은 단순히 문학의 하위 장르 개념으로 인식되어 ‘노년문학’, ‘노년학적 소설’, 2) ‘노인성의 문학’, ‘노인문학’³⁾으로 불리며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
- 1) 노인과 노년에 대한 호칭의 문제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즉 개별적인 의미에서는 ‘노인’을 세대적·집단적 의미에서 ‘노년’(특정연령대와 그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 2) 김윤식,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3) 이 작품은 노년소설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밝히는 노년소설의 요건인 대부분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년기를 맞은 작가들에 의해 노년문학이 창작되면서 문학 연구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기존의 노년문학에 대한 연구가 고령의 문단 대가들(박완서, 김원일, 문순태, 최일남 등)의 작품에만 집중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노년문학의 풍성한 저변 확대 차원에서 1960년대부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 왔으며 노년기를 맞아 작가 자신을 포함한 노년기 여성들의 삶에 관심을 두고 창작활동을 한 이정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정호는 1931년 출생한 여성작가로 6.25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과 함경도 지방에 관한 고향 기억들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주로 평단에서 주목받았다. 앞서 언급했던 문단의 중심부에서 활동한 주류층 작가들과는 변별되는 비주류층에 속해 작품 활동을 해나간 작가라 하겠다.

이정호의 《노인정 산조》는 작가가 홀로 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그의 주변에 살고 있는 노년 여성들의 일상적 삶을 관찰하고 취재하여 작품화한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노년 여성의 삶에 드러난 다양한 차원의 노년 문제들에 관심을 보이며 노년기 여성의 정체성을 탐색해 내고 있다. 작가의 그동안 작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비록 문단의 중심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늘 현실 세계와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작품 활동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⁴⁾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를 맞은 여성작가가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노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작품으로 연결시키는 작가적 태도는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작품이 작가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풍요로워지며 존재감을 갖는다는

의 60세 이상 65세 이하를 최저 연령 선으로 하고 노년의 인물이 주요인물로 나타나야 할 것,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와 갈등이 서사골격을 이루고 있을 것,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와 의식의 고유한 국면에 대한 천착이 있어야 할 것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노년소설의 개념을 서사공간이나 생산 주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자리에 두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문제의 자연스러운 반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전홍남, 《한국현대노년소설연구》, 집문당, 2011.참조)

4) 박선애, <이정호의 《움직이는 벽》에 나타난 기억의 구성방식>, 《우리어문연구》36집, 2010.

걸 보여준다. 《노인정 산조》⁵⁾를 창작하게 된 동기는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생활 주변 여성 노인들에게 있다고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 어, 저도 이 아파트에 이사와 가지고 꼭 십년 전인데, 이사와 가지고 처음으로 노인정이란 데를 가봤거든요? 그래 그 가게 동기도 저희 위층에 사는 401호에 사는 할머니가 그냥 어느 날 그냥 무작정 와서 저기 현관에 와서 벨을 누르더라구요.

이: ... 마침 방송에서 그때 이 아파트 처음으로 입주해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방송으로 아 65세 이상의 할머니들 한 노인들은 노인정을 여기 저기 조직하니까 오십시오. 그때 제가 아 됐다! 노인정에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자, 그래서 **노인정이란 텔 발 들여놨어요.** 들여놓고 보니까, 그런 할머니들이 한 많아요. 한 2-30명 왔어요.⁶⁾ (이하, 굵은 글씨 인용자)

이정호는 이 작품을 통해 노년을 단지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그리지 않고 문화적 현상으로 그려 나간다. 그는 노년이 더 이상 ‘금지된 주제’로서 늙음을 유난히도 멀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 그 말년에도 계속 인간으로 남아 있기 위해 ‘침묵의 음모’⁷⁾를 깨는 자세를 취한다. 이런 작가적 면모는 작품 속에서 서술자가 초점화자⁸⁾인 ‘301호’를 통해 자신의 노년에 대한 지각, 인식, 감정 등을 지향해 나가는 데서도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노인정 산조》를 통해 일제강점기, 전쟁, 산업화 과정을

5) 이정호, 《노인정 산조》, 도서출판 계간문예, 2006을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6) 박선애,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연구시리즈95 이정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pp. 225~231의 구술 자료를 보면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가 자세히 나타나 있다.

7) 시몬느 드 보부아르, 홍상희, 박혜영 역, 《노년1》, 책세상, 1994, pp. 8~16.

8) 초점화(Focalization)는 일정한 대상에 대해 지각을 지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인식, 감정, 관념적 지향 등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의 용어이며, 작가는 자신의 생각, 지각, 인식, 감정... 등등이 대상을 지향하는 초점화의 주체를 ‘초점 화자’라 한다.(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p. 410.)

거친 특정 연령집단으로서 현 노년 세대의 호칭, 신체적·정신적 노화 현상, 경제·사회적 특성과 함께 노년 여성의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작가가 지향하고 있는 노후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또한 이들 노년 세대가 자녀 가족과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겪게 되는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노년은 인간 발달의 연속 과정의 한 단계로서, 누구나 한번은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서, 작품에 나타난 노년의 삶을 이해하며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2. 노년 여성의 호칭을 둘러싼 여러 시선들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그 성격에 어울리는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을 명명법이라고 한다. 소설 속의 인물들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이름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대체로 그 성격에 생명감과 개성을 불어 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⁹⁾ 그러다 보니 인물은 작품의 주제적 측면에서 보면 환경과 관련되어 ‘어떤 인물인가’, ‘무엇을 뜻하는 인물인가’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볼 수 있다.

이정호의 《노인정 산조》에는 많은 여성 노인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정확한 이름으로 즉 ‘지필순’, ‘박정희’와 같이 명명되어 있는 인물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여성 노인들은 서로의 편의에 따라 호칭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여성 노인들의 명명 방식에는 노년 구체적으로 여성 노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함의¹⁰⁾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의 노년 호명과 관련된 연령주의적, 성차별적, 신분주의적 시

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10) 김미애, <60세 이상 인구의 명칭에 대한 대학생의 평가적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제24권1호, 2004에서 본격적으로 노령인구에 대한 명칭에 대해 연구하였다. ‘노인’이란 명칭이 부정적인 편견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케팅 연구 분야에서 노령인구에 대해 사용되는 명칭들에 대해 대학생들의 평가 태도를 분석하였다.

각¹¹⁾이 작품의 등장인물 명명법을 통해 발견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년의 호칭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과 같은 호칭은 ‘나이 들에 대한 낙인’의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나이든 존재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선생님’ 또는 불리는 사람의 앞에 붙여 부르는 ‘-님’과 같은 호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노년의 호명 문제가 사회 안에서 자주 거론되는 현상은 바로 노년의 주변화에서 비롯된다.¹²⁾

과거에 ‘노인’이란 호칭엔 지혜와 연륜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의 통합적 면모를 지닌 인물이란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언론 매체 및 전문가들이 부정적 의미로 노인을 호칭하면서부터 사회문화적으로 노인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성취에서 소외되어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익명의 노년으로 지칭되는 용어로 굳어져 버렸다.

현재 노인이란 호칭 속에는 ‘성장’을 목표로 살아온 세대로서 나이가 들어 그러한 사회적 역할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변적 위치로 전락한 세대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노년을 지칭하는 여러 호칭 속에도 이런 주변화 된 시각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노인정 산조》에 나오는 여성 노인들은 바로 이러한 세대에 속하는 노년들로서 가족과 사회 안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왔으며 노년기를 맞아 자신의 존재감을 전혀 찾지 못하고 노년의 시간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노년기 호칭 역시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법으로 명명되어 있다.

작품에 드러난 여성 노인들의 이름을 나열해 보면, ‘키다리’, ‘강 할머니’, ‘301호’, ‘401호’, ‘901호 할머니’, ‘18층 할머니’, ‘부회장’, ‘감사’, ‘동서할머니’, ‘똥보할머니’, ‘유모차 할머니’, ‘하얀 머리 할머니’, ‘애기 할머니’, ‘일본 말쟁이 할머니’ 등이다. 이렇게 여성 노인들의 호칭에는

11) 정진웅, <노년 호명의 정치학>, 《한국노년학》, 31권3호, 2011.

12) 특정한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사람의 호명을 둘러싼 변화들은 종종 이러한 호명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주변화 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노년을 호명하는 새로운 표현들은 현실에서 심화된 노년의 주변성을 새로운 호명방식을 통해서 완화해 보려는 일종의 ‘완곡어법’에 해당된다. (정진웅, 위의 글, pp. 752~754.)

일상생활 속 언어적 실천에 있어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시선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소설 속에서 아펠레이션(appellation, 이름 짓기) 방법에는 우의적(allegorical)방법, 음성상징을 이용한 방법, 별명을 이용한 방법 등¹³⁾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여성 노인들의 이름에 대체로 노쇠한 신체적 특징이나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호수와 층 그리고 ‘노인정’에서 맡고 있는 직함이 그대로 이름 짓기로 이어진다.

작품 속에서 여성 노인들 스스로가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할머니’란 호칭은 ‘할아버지’ 혹은 ‘노인’이란 호칭과 같이 익명의 노년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설 문법의 명명법에서 보이는 개성적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는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인물들의 호칭 속에는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내재해 있는 연령주의적 시각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별 불일 없어진 사회적 위상을 나타내는 신분주의적 이데올로기도 확인된다.¹⁴⁾

게다가 이 작품에 나타난 ‘키다리’, ‘똥보할머니’, ‘하얀 머리 할머니’, ‘유모차 할머니’, ‘애기 할머니’ 호칭에는 시각적인 편의에 따라 건강이나 외모와 같은 특징으로 여성 노인을 정의해 나감을 보여준다.¹⁵⁾ 반면, ‘노인정’의 남성 노인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노인정의 회장 직분을 맡은 남성 노인을 호칭할 때는 그의 이전 사회적 역할을 거론하며 호칭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체로 남성 노인들에겐 연령, 계급, 무엇보다 이전의 사회적 지위인 신분이 호칭에 자주 사용된다. 이는 가부장제 하에서 살아온 여성 노인들에게 공·사 영역에 대한 성별 분리적 시각이 여전히 반영되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여성 노인의 호칭 속에서 노년의 주변성 외에도 남성 중심적 젠더 담론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 작가인 최일남의 <아주 느린 시간>에 등장하는 남성 노인들의

13) 한국현대소설연구회, 《현대소설론》, 평민사, 1994. pp. 128~134.

14) 정진웅, 앞의 글 p. 755.

15) 김정석, 김송은, <남녀 노인의 노년시작 인식 연령과 노인 인지>, 《한국노년학》, 32권 1호, 2012.

호칭과 비교해 보면 이는 더욱 선명하다. 그의 작품에는 남성 인물들의 호칭이 ‘성’으로만 제시되어 있지만 ‘-선생’이라는 존칭이 쓰인다. ‘-선생’이란 호칭에는 그들의 현재 처지나 삶의 상태와 과거 이력들을 알게 하며 지금은 은퇴해 있는 인물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남성들임을 호칭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놓을만한 이전의 사회적 성취가 없는 남성 노인들에게는 여지없이 ‘할아버지’라는 노년의 익명적 호칭이 사용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남성 노인들에게는 사회적 활동에서 은퇴한 사람들로 대우하는 ‘선생’이란 호칭에 성을 붙여 많이 사용하며, 여성 노인들에게는 가사 일을 해온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할머니’란 호칭을 많이 사용한다. 여기에서 ‘노인정’의 여성 노인들 대부분이 몰개성적인 ‘할머니’라는 호칭으로 명명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할머니’란 익명성을 지닌 호칭 앞에 구성원 간의 편의적인 고유 지시어가 붙을 뿐이다. 이는 노인에 속하는 서술자 자신도 ‘노년’이란 범주와 동일시하지 않고 오히려 노년은 어떠한 식의 고정관념 하에서 다른 노인들의 호칭을 타자화 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등장인물의 명명법(이름짓기) 외에도 노년의 주변성이 여성 노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은 ‘노인정’의 생활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려고 하지도 않고 노인정에 나오는 낯선 여성 노인들의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각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호칭하고 명명할 뿐이다.

여성 노인들은 부회장이 노인정의 운영비를 회비 형식으로 모으자고 의견을 내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자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모습에서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존해 있는 대부분의 현 노년 여성의 처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301호’가 금전출납부에 회비를 내는 여성 노인의 이름을 일일이 적고 기록으로 남기자 여기저기 앉아 있던 여성 노인들이 치마와 바지 속에서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회비를 꺼낸다.

301호는 이때, 펄쩍 생각이 나서 노트에다 줄을 그어 금전출납부를 만들었다.

3만 원이 너무 고맙고 그냥 받기가 미안해서였다. 날짜를 쓰고, 이름 901호 할머니, 입금 3만원, 이렇게 쓰고 그 아래 칸에 301호 2만원, 하고 입금을 잡았다. 합계 5만원. 그리고 아래 칸에 매운탕 2만원 지출, 하고 잔금란에 3만 원, 하고 썼다. 그런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16층 할머니가 나도 2만 원 벌게, 하였고 이어서 18층 할머니가 나는 만 원밖에 없는데, 하면서 치마를 들고 속바지 주머니에서 파란 만 원짜리를 꺼내주는 것이었다. 아, 이름을 남긴다는 것, 할머니들도 그것이 미덥고 기쁜 것이로구나.(p. 48.)

위의 인용에서 화자가 설명하고 있듯 여성 노인들은 이전 시기부터 이름을 남기고 기록한다는 공적 활동에 익숙해 있지 않다. 이전 시기까지 여성 노인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이름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알게 하는 대목이다. 비록 편의적으로 노인정 안에서 불리는 호칭일지라도 자신의 이름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에 기꺼이 아끼던 돈을 내는 모습은 노년 여성으로서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 할머니’라는 호칭에는 여성 노인¹⁶⁾에 대한 비성화된 존재라는 인식도 담겨져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성 노인’은 여성성을 잃어 감에, ‘남성 노인’은 남성성의 근간인 사회적 성취를 잃어가는 가는 것에 주목한 성차별적 시선을 노년기 호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년을 다룬 작품들에 나타난 노년의 호칭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개별적 노인의 특성보다는 보편적 다수의 노년 인물들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담아낸다는 점이다. 《노인정 산조》에 나타난 여성 노인들의 명명법을 통해 여성 노인들의 정체성과 무관한 호칭들이 확인되며, 한국 사회의 노년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소외와 고립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16) ‘여성 노인’이란 호칭에는 ‘청년 여성’이나 ‘장년 여성’과 달리 ‘늙었음’을 강조하는 의미와 함께 여성적 이미지가 퇴색하고 있다. 연령주의 사회에서 ‘여성 노인’이 비성적 존재로 호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부장 사회에서는 항시 연령주의에 의한 여성의 비성화가 남성의 비성화에 선행하게 된다.(Songtag, S. (1997) *The double standard of aging*, In M.Pearsall(Ed.) *The other within us: feminist exploration of women and aging*. Boulder: Westview Press. (정진웅, 앞의 글, p. 758, 재인용)

르네 웰렉은 “성격 창조 의 가장 간단한 형식은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명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 정령화 하는 것, 개별성을 주는 것이다”¹⁷⁾라고 말한다. 그만큼 소설에서의 이름이란 성격창조의 한 출발점이며, 소설미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소설 속 인물들의 명명에는 대부분 그 인물들의 성격이 개성적으로 드러난다. 작품에서 ‘노인정’의 여성 노인들의 명명이 개성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각 인물의 성격창조 역시 개성적인 면을 찾아 볼 수 없다. 호칭을 통해 보여준 한국 사회의 노년에 대한 주변화 된 인식은 인물의 성격 묘사에 있어서도 노년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반영해 나간다.

얼굴이 유난히 검고 미간을 언제나 찌푸리고 있는 강 할머니의 인상은 험상궂었다. 고부간에 대화가 없는 이유를 며느리가 교만한 탓이라고 치부하지만 강 할머니 역시 똥하니 앉아 있다가도 불쑥 화를 내거나 자기주장이 옳다고 뺨대는 고집으로 보아 피장파장인 것 같다. (p. 25.)

위의 ‘강 할머니’의 외모와 성격 묘사 부분에는 노인에 대한 편견이 발견된다. ‘언제나 찌푸리고’, ‘험상궂다’, ‘똥하다’, ‘불쑥 화를 내다’, ‘뺨대는 고집’ 등의 부정적 어휘를 통해 ‘강 할머니’ 같은 노인이 갖는 성격적 특성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이러한 어휘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인지, 태도, 행동이라는 층위에 작용하여 유형화한다는 것을 전제”¹⁸⁾할 때 노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통 사회에서 노인들은 가족이나 사회에서 모든 미덕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인식은 노인들에게는 평정함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노년을 이해하는 데 더욱 무관심을 유발하게 된다.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들 자신의 승화된 이미지, 그것은 백발의 후광에 싸인 경험

17) R. Welle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70. 참조

18) 채영희, <노인 허위망에 나타난 ‘늙음’의 의미 분석에 따른 새로운 노년인식>,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 2012, p. 111.

이 풍부하고 존경할 만한 인간, 인간 조건을 저 높은 곳에서 굽어보는 현자를 원한다. 노인들이 그런 이미지에서 멀어지면 그들은 형편없는 밑바닥으로 추락한다.

‘강 할머니’의 형상도 전통 사회 노인들의 이미지인 지혜의 통합성을 보이는 시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노인정’의 여성 노인들의 성격도 과거 노년의 이미지에서 추락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들은 ‘노인정’ 안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이나 대화에 있어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또한 변화하는 세상과 새로운 세대와 조화를 못 이루어 나가는 등 노욕과 불안정한 성격적 특성을 끊임없이 재생산해 낸다.

결국 우리 사회의 노년의 주변화 현상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확인되고 있음을 《노인정 산조》에 나타난 여성 노인들의 호칭과 성격 창조 등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노년기 여성의 이름(호칭)이 성인 세대의 기혼 여성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노년 인물들의 몰개성적인 명명법과 성격 창조는 한국 사회의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상징적 언어 행위로 드러내며 그들의 자존감이나 정체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세대 갈등 및 노화 과정으로 본 노년의 정체성

노년은 유년, 소년, 청년, 장년의 연장인 세대적 개념이며, 노인들을 총칭하는 집합적 개념이다.¹⁹⁾ 최근 들어 우리는 노년 세대를 변화한 세상과 새로운 세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닌 인물들로 인식한다. 그러다 보니 젊은(성인) 세대와는 다른 이질적 존재로 작품 속에서도 그려지고 있다.

《노인정 산조》의 여성 노인들 대부분도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한

19) 그에 반해 ‘노인’이란 호명에 대해 여러 이견도 있지만 노년에 이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희생이나 헌신이 몸에 배어 있는 여성들이다. 그들은 인내하고, 견디는 여성의 삶 그 자체로 살아왔다. 어찌 보면 이들은 한국 사회의 현재 가장 보편적인 여성 노인들의 모습이다.

노인이 자녀의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존성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다보니 심한 소외감에 시달리며 자녀 가족들에게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 작품에서도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를 도와주기 위해 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 ‘부회장’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자녀 가족에게 무엇이라도 도움을 주고자하는 헌신적인 면모를 보이다가도 노년의 가사 노동의 힘겨움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괴로워한다. 칠십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리는 그에게 아들이 아내의 생일상 이야기를 꺼내자 그동안 쌓여있던 노년 생활의 고단함과 자존감의 상처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며 신세 한탄을 한다.

부회장이 301호를 슬쩍 훑쳐보았다.

“솔직한 얘기지,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 상팔자야. 힘이 있을 때까지 새끼를 돕자, 내가 맡은 듣기 좋게 하지만 아, 저희들이 당당하게 살구, 나한테 두 여남은 평 아파트만 있다면 난, 혼자 살 테야. 아직은 내가 도움 되니까 그것들이 고분 고분하는 거지, 지 새끼 일이라면 에미는 안 중에두 없다니까, 새끼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집이 비어있기라도 해봐, 난리야 난리. 엄마는 애를 빈 집에 혼자 두면 어떡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 지랄을 한다니까, 우리 아들놈이. 내가 뭐 세파튼가?” (p. 62.)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노인들처럼 노년기 여성들은 대부분 일생 동안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왔고, 노후에도 배우자 수발을 비롯해 가족원의 돌봄이나 가사 노동의 일차적인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노년기 일상생활에서 남성 노인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한다. ‘부회장’처럼 여전히 젊은 시절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맞벌이를 하는 자녀 세대를 위해 가사일과 손자녀를 돌보며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자녀 세대와 자주 충돌을 빚는다.

여성 노인들의 자녀 세대와 동거²⁰⁾는 시골이나 도시에 자신만의 독립

적인 주거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진다. 자녀에게 다 퍼준 여성 노인²⁰⁾들은 자녀의 삶은 중산층이지만 정작 본인은 얼마 되지 않는 노인정 회비를 기꺼이 내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처지에 놓인다.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년 계층²²⁾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상대적 빈곤에 시달린다. 그야말로 노년기에 자녀 세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사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만 보면 생활의 절대적 궁핍함과 거리가 멀지만 ‘노인정’에서의 여가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노인정’에 처음 나와 단체 생활에 참여하는 방법도 사회화가 되어 있지 못해 서투른 모습을 보인다.

노년이 혼자 힘으로 일을 한다거나 연금, 저축의 능력이 없을 경우 노후 생활을 가족부양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산층 자녀 세대 역시 손자녀의 교육비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맞닥뜨리며 살고 있어 실질적으로 노년에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게다가 자녀 세대의 가족은 산업화와 현대화로 인해 가족 구조와 가치가 변화하면서 핵가족 성향이 강하여 부양하는 노인들의 존재감을 미미하게 여길 때가 많다. 이 작품 안에서도 자녀 가족이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 함께 살고 있는 여성 노인을 배제하는 등 노인의 고립을 보여준다. 여성 노인들은 한 공간 안에서 자녀 세대와 같이 살고 있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위상을 갖지 못한다.

-
- 20) 통계청 자료조사를 살펴보면 자녀와의 동거 희망 여부 조사에서 2002에는 53.0%, 2005년에는 47.5%, 2007년에는 40.0%로 점차 동거 희망 의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6년도 <사회조사보고서>)
- 21) 현재의 노인 세대는 자녀 교육이나 출가를 위해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고 경제활동이 용이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취약한 세대이다.
- 22) 우리 사회 노인층 중 빈곤 비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 인구 비율보다 훨씬 높은 편으로 노년기 빈곤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전체 인구에 비하여 노인 인구 특히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여 10명의 여성 노인 중 한 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김수영 외, 앞의 책, pp212~213.)

노년기로 접어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약화되면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어느 시기보다도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보호 부양하는 일방적인 수직관계였으나, 요즘에는 상호호혜적 관계로 노부모, 성인 자녀 쌍방이 도움을 주고받는다. 즉 자녀가 노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 생활보조, 수발 등의 도움을 드리고 노인도 자녀에게 자녀 돌보기, 입안일 도움, 상담 및 정서적 지지뿐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어 노인의 의존성뿐 아니라 독립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노년기 삶의 질과 성공적인 노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작품 안에서 자녀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부회장’, ‘401호’, ‘하얀 머리’ 할머니들은 자녀 가족에게 가사와 손자녀를 돌봐주는 도움을 주고도 자녀 세대와 계속해서 갈등을 겪는다. 그 이유는 여성 노인의 가사 노동이나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노년에 대한 가족 간의 인식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부모 세대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전통적 가치관과 핵가족으로 이루어진 자녀 가족의 이기적 가족주의 성향이 충돌하면서 노인 문제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은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가족 간의 갈등은 ‘소공덕 할머니’의 순간적 실수로 아파트에 불이 나자 아파트 안은 노인의 가사 일에 대한 일대 격론이 벌어지고 술렁거리며 심화된다. ‘소공덕 할머니’는 결국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그리고 다른 자녀의 집으로 이동하며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애매하게 손녀가 야단맞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 401호는 부엌에 설 수가 없었다. 401호가 부엌에서 가스에 손을 대거나 수도를 틀기만 하여도 이 방 저 방에서 몰려나왔다. 아들, 며느리, 손녀, 손자가 이구동성으로 뭘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였다.

“이것들이 글썽, 날 병신 취급하잖아.”

할머니들은 웃으면서

“그래, 가만됐어?”

“날 바보 취급하느냐고 소릴 질렀지 뭐.”

어느 할머니가 탄식조로 말하였다.

“그래,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젠 다 그렇지. 뭐. 실수를 해대니 단속을 할 수 밖에. 설불리 나서지 말구 구구로 주는 대로 자세요.” (p. 52.)

위의 인용에서도 부엌의 수도 한번 잠그지 않았다는 이유로 ‘401호’에게 가사 일 금지령이 내려지고 가족들의 감시 대상이 된다. 가족들의 경계 속에서 ‘401호’는 심각한 소외감을 경험하며 가족들과 대립한다. 아파트 안에서 노년 세대와 자녀 세대와의 갈등은 누구 집 할 것 없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개인주의 가치관이 내재한 자녀 세대와 전통적 가치관이 팽배한 노년 세대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충돌한다.

작품 안에서 자녀 세대가 부모를 봉양하는 형태를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효’ 관념에 따라 늙고 병들어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여성 노인을 지극 정성으로 수발하는 자녀 세대와 또 하나는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자 자신들의 가정이 위협에 노출될 것이 두려워 퇴근 전까지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녀 세대가 그 예이다.

그런가 하면 가족 밖 공적 활동에서는 아파트 내 자치기구인 ‘부녀회’나 ‘동 대표 모임’의 성인 세대와도 갈등을 빚는다. 아파트 내에서 서로 협조하며 운영해 나가야 할 노인정과 부녀회가 지원금 문제로 다투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세대 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그려진다. 노인정 운영의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감사’가 아파트 부녀회 임원들에게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지원 요청을 하자 부녀회의 반감을 사게 된다.

두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부녀회장을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동시에 샷대질을 하며 속사포로 퍼부었다.

“아파트 내에서 노인정이 제일이라니요? 아파트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입에 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도대체 노인들이 알기나 해요?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하는 일이 뭔데, 어째서 노인정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말해 봐요. 말해 보라니까.”

“.....?”

“들자들자 하나까 별소릴 다하네. 할머니가 도대체 노인정에서 뭔데요? 회장

은 아니고 부회장도 아니고, 뭘 하는데요? 내라 말아라, 정말 웃기네.”

감사는 파랗게 질려서 이 여자 저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동시에 지껄이는 바람에 사실 거의 알아듣지 못하였다. 귀에 남은 것은 정말 웃기네, 그 말뿐이었다. 정작 자존심이 강하고 약이 오르는 말은 놓치고, 감사는 ‘정말 웃기네!’라는 말을 물고 늘어졌다.

“뭘라꼬? 웃긴다꼬?”

“너거들이라니요? 우리가 할머니의 딸이에요? 손녀예요? 우리 회장님도 육십이 다 되어가는 어른이란 말이에요.”

“너거들은 부모도 없나? 왜카른, 왜떡지 않게 누구한테 눈알을 뒤집고 덤비노?”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늙은이가 밖에서 대접받으려고? 택도 없다. 정말 웃기네.”

“봤나 이년아, 왜카른 난, 아들 손자한테 깡뚝이 대접받고 사는 사람이야. 하는 행세를 보이까네 너거들 집안 풀이 눈에 선하다. 나쁜 년들.”

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지나갔다. 저만치 나무 밑엿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p. 38.)

이 과정에서 초점화자인 ‘301호’가 두 세대 간의 중재를 맡아 원만한 해결로 이끈다. 그는 다른 여성 노인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노인정의 여러 정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 부녀회 임원들을 설득한다. 그는 ‘노인정’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에 비교적 감정이입을 자제하고 편견이나 주관적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노년의 문제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내 여성 노인들과는 다른 신분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차별적인 노년 담론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이 작품에는 신체적, 심리적 노화 현상으로 인해 갈등하며 노년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노화는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을 맺는 유기체의 퇴행적인 변화이자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의 한 부분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과정을 포괄한다.²³⁾ 노화는 노년의 생활 거의 모든 면에서 쇠퇴, 상실, 죽음 등과 연

23) Birren, J. E.(1964), *The Psychology of aging* Englewoodcliffs, New Jersey:Prentice-Hall.(이준우, 이현아, 황준호, <한국 노인의 노후 생활에 관한 인식>, 《한국노년학》 31권 3호,2011, p. 711.재인용)

관하여 부정적인 인식으로 고착되어 나타난다.

‘노인정’에 나오는 여성 노인들은 만성적인 지병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며 외견상으로도 눈에 띄는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다. 신체적 건강은 행복한 노후 생활의 첫 번째 요소로 꼽을 만큼 중요하다. 건강함이 뒷받침 될 때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다. ‘노인정’의 여성 노인들은 신체적 쇠약을 경험하며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보이고 타인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401호가 어울려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까닭은 **가는 귀가 먹었기 때문이다**. 큰소리로 또박또박 일러주는 301호에게도 동문서답하는 일이 많았다. 오가는 좌중의 대화가 소상하게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와 하고 웃음이 터져도 함께 웃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영문을 몰라서 두리번거리기까지 하였다. (중략)

그래서 벽에 기대 앉으면서, 돼지 목 따는 소리만큼이나 본새 없이 거친 부회장의 말을 더러는 듣고 더러는 놓쳤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웃고 있었다. 본새 없이 거친 목소리도 우습거니와 아주 적절한 그 비유, ‘똥 마려운 개’라는 말이 우스워서 소리 내어 웃었다. 할머니들의 웃음이 401호를 더욱 발끈하게 하였다. (p. 50.)

할머니는 가슴이 오그라지게 아팠다. **가발을 아무테나 벗어놓은 당신의 털충함이 화가 나고 슬펐고**, 수진이 한테 들킨 것이 더욱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웠다. 이놈의 계집애, 하필 이런 때에 와 가지고……. 변기뚜껑을 덮고 그 위에 올라앉았다. 도무지 묘책이 생각나지 않았다. 어렴풋이 딸 영혜의 말이 생각났다. 팽팡, 말하고 살아요. 변한 것을 인정하고 화를 내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요. 엄마가 손해니까. 피, 좋아하시네. 할머니는 지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수진이를 패주고 싶을 뿐이었다.

(중략)

할머니는 아기도깨비 같은 수진의 얼굴이 놀랍기는 하지만 화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는 수진이 머리에 쓰고 있는 가발이 부끄럽고 화가 난 것이었다.……할머니와 수진이 눈시울에 눈물이 고여 있고, 뺨에도 똑같이 눈물방울이 흘러 있었다. (<할머니의 눈물> p. 166.)

《노인정 산조》에서 ‘401호’의 난청, ‘유모차 할머니’의 허리굽음 그리고 이정호의 다른 작품인 <할머니의 눈물>에서 ‘할머니’의 탈모 등 노년 여성의 신체적 변화, 즉 청각, 두발, 근육 등과 같은 생리적 상실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이 드러난다. ‘401호’는 노인정의 다른 할머니들과 난청 때문에 대화를 제대로 나눌 수도 없고 대화 내용도 잘못 이해해 주변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다보니 ‘401’는 누군가가 자신의 흉을 본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린다. 이는 대인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고 점점 고립되는 노년의 모습이기도 하다. 노인성 탈모로 인해 가발을 쓰고 다녀야 하는 ‘할머니’는 자신의 가발을 갖고 놀고 있는 손녀가 밍기만 하다. ‘할머니’에게 신체적 변화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화나게 하며 슬프게 할 뿐이다. 이정호의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 노인들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늙음이라는 의미와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 이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려는 경향과 사회적으로도 노년을 수치스러워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가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신체적 변화는 노년 여성에게 심리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노년기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는 우울감과 고독감 같은 심리적 장애를 일으킨다. 젊은 시절엔 크게 다가오지 않던 자연의 변화도 이젠 쉽게 감정이입이 되어 자신의 노쇠한 모습과 생기를 잃어가는 가을날의 풍경이 비교되며 우울한 상태에 빠진다. 더 나아가 푸르른 자연의 모습도 더 이상 생명 현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²⁴⁾ 변화된 노년의 모습 속에서 미래가 없는 현재 속에 살며 자존감을 상실한 모습을 보인다. 작중 인물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문제에도 화를 내거나 트집을 잡는 노인 특유의 부정적 기질로 발현된다.

노인의 고독은 감정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비롯되거나 혹은 우울, 자살생각, 권태, 배제, 자기비하 등의 심리적 고통 및 감정과 관련이 있다. 또한 노인의 고독은 노인의 사중고(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 중

24) 이정호의 작품 <할머니의 눈물>(1998)에는 이러한 여성 노인의 복잡한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하나로 역할의 상실, 경제적 능력의 상실, 신체적 한계, 사별 등으로 인해 다른 생애주기보다도 고독감이 깊거나 만성적일 가능성이 크다²⁵⁾고 본다.

《노인정 산조》에서도 화자인 ‘301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여성 노인들이 ‘노인의 고독감’을 조금씩 드러낸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활발한 성격이나 조용한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 모두 쇠약해지는 자신의 모습과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에서 점점 고립되면서 발생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하얀 머리 할머니’의 죽음과 같이 동년배 노인의 죽음과 배우자의 사별을 통한 상실이 노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고독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작품 속 여성 노인들은 외롭거나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나마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더 이상의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과거의 삶과 자녀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비슷한 처지의 여성 노인들끼리 ‘노인정’에 앉아 대화로 시간을 보내며 서로 위안 받고 있는 상황이다.

4. 노년 여성의 경제적 문제와 성공적 노후 생활

앞 장에서 살펴본 노년 세대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신체적·정신적 변화 외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 문제이다. 2009년 통계청 자료²⁶⁾에 의하면 노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빈곤이라고 한다. 그만큼 노후의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경제력은 큰 의미를 차지한다. 노년이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필요한 것이다.

노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노인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25) 양순미·임춘식·오윤자, <농촌 노인의 우울에 관련 변인이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41호, 2007, pp. 139~158.

26) 통계청,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통계청사회통계국, 2009.

노인들은 남성노인은 물론 타 연령집단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고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²⁷⁾고 말한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노후에 자립적 수입원의 비율이 낮고, 이는 노동 생애 주기를 걸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노후 보장이 적은 직종과 직위에 있었음²⁸⁾을 의미한다.

이 작품 속에서도 평생을 가사 일을 하며 가정에 머물러 있던 여성 노인들은 특별히 남편에게서 받은 유산이나 재산이 많지 않고, 소득의 대부분도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지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차원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현 우리 사회의 노년 여성은 성장 일변도의 사고방식과 남성 중심적 가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신체적, 경제적, 교육적, 법적 제 영역에서 취약한 위치에서 생활해 왔다. ‘301호’처럼 이전 시기에 전문직 활동을 하여 어느 정도 노후 생활을 대비하거나 배우자와 사별 후 연금이나 유산을 받아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한 여성 노인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여성 노인들에겐 노년기라는 생애주기상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의 생애주기 단계에서부터 누적된 문제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심화된 결과²⁹⁾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도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취약한 위치로 인해 다양한 노년의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 노년 여성의 내부의 여러 차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발견할 수 있다. 외면상 비슷한 아파트 내에서 살고 있는 여성 노인들이지만 그들의 노년기 이전의 생애 주기에 경험한 다양한 삶에 따라, 현재 여성 노인들 각자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차별적 노후 생활을 해나간다.

‘301호’를 제외한 ‘노인정’의 여성 노인들은 노년기 전부터 경제적으

-
- 27) Anzick, M.A., & Weaver, D.A. (2001). Reducing Poverty Among Elderly Women. ORES Working Paper Series Number, 87. (김수영 외, 앞의 책, p. 217, 재인용)
- 28) 김정석, <노후 생활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인구학》 제26권 제1호, 2003, p. 64.
- 29) 김정석, 앞의 글, p. 60.

로 부유해 힘든 육체적 노고 없이 살았던 여성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남성 노인들과 같이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해와 눈에 보이는 사회적 성취를 경험한 인물들도 아니다. 그들은 교육 정도도 낮고 오직 자식들의 부양을 위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습관처럼 짊어지고 살아왔고, 노년기에도 그러한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인물들이다.

즉 ‘노인정’의 여성 노인들은 핵가족 사회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세대로서 평생을 힘겹게 살아왔지만 현재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노후 생활을 전적으로 자녀 세대에게 의존하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경우 자립적 수입원을 가질 가능성은 낮고 그 정도는 여성에게서 훨씬 낮다는 분석³⁰⁾이 이를 증명한다. 안정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후의 삶을 개척해나갈 여유가 없다. 그들이 남은 인생을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데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작품 속 여성 노인들은 상대적, 주관적 빈곤³¹⁾에 시달리는 노후 생활의 면모를 보인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노후를 혼자 보내야 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빈곤 상황들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성 노인의 빈곤 상황은 노후의 일상생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충분하지 못한 생활비’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없다.

“그래. 세상에, 자기는 무슨 회사의 과장이라나. 만형은 무슨 사업을 하고, 둘째형은 공무원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사위가 돌인데 어찌어찌하고……. 그래서 내가 딱 말했지. 노인정에 어머니를 모시고 올 때는 할머니들이 갈라서 잡수시게 무얼 들고 오든가, 금일봉이라도 척 내놓으시던가, 내가 딱 그랬지. 그런데 이천 원?”

30) 김정석, 앞의 글, pp. 67~75.

31) 절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일정한 생활수준과 기본욕구 그리고 최소한의 소득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상대적 빈곤은 사회 내 전체 구성원과 비교해 규정한 빈곤상태, 주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하다고 스스로 정한 경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정의된다.(김교성 외,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 2008, pp. 297~320.)

“아들 잘 둔 거, 그거 아 무 소용없어요. 바쁘다, 어쩌다 해서 얼굴도 못 본다니까. 수수하게 자란 자식이 좋아요.” (p. 60.)

위의 인용은 자녀가 ‘노인정’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집안 자랑만 떠벌이고 정작 자신의 어머니가 드실 점심 값을 해결하지 않고 돌아가자 미안한 마음에 어머니인 여성 노인이 점심 값으로 이천 원을 내놓는 장면이다. 작품 속에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여성 노인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궁핍함으로 여유가 없이 늘 불안하고 위축된 심정으로 일상을 보낸다. 겉에서 보기엔 자녀 세대와 같이 도시의 중산층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여 노년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도 나쁜 건강 상태, 우울감,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 작품 속에서도 ‘노인정’의 여성 노인들은 경제적 노후 준비³²⁾를 하지 못해 노년기에도 인간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

결국 이 작품은 앞서 살펴본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경제적 요인이 현 노년 세대의 생활 영역 전반에 나타나며 노년기의 정체성과 관련해 문제적 상황으로 그려져 있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노년기의 삶은 노년기 이전에 준비되어야 하고 이런 준비들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삶은 질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보듯 노후 준비를 할 겨를 없이 노년기를 맞이한 현 여성 노인들의 삶은 주변화 되어 정체성의 혼란 양상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보편적인 현 노년 여성의 삶과는 달리 노년기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인들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갖추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해나가는 인물로 ‘301’호가 등장한다. 대부분의 ‘노인정’ 할머니들 의식은 현재의 삶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면모를 보인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도 노년의 과거 지향은 존재 기반의 모호성과 관련이 있

32)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다고 말한 바 있다.³³⁾ 과거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현재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노인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본다.

하지만 ‘301호’는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존스러움’이나 ‘궁핍함’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노인으로 등장한다. 그는 전통적인 노화의 개념을 극복하고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즉 ‘성공적 노화’³⁴⁾의 개념에 부합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301호’는 현재의 노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판적이고, 바람직한 노년 생활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실천해 나가는 인물이다.

서술자는 초점화자 ‘301호’의 시각을 빌어 노년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전망을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그는 기존의 ‘노인답다’라는 관념들에 저항하며 산다. 보통 노인들 곧 ‘노인정’의 할머니들의 삶의 태도인 과거의 확대에 의한 현재의 소실로서가 아니라, 과거와 거리두기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용기를 낸다. 그는 혼자 살면서도 아침을 대강 대강 떼우는 식으로 먹지 않고 항상 자신의 방식으로 차려진 상태에서 먹는 등 자아 존중감을 보인다. 또한 하루의 시간 관리도 글 쓰는 일과 일상적 삶을 구분하여 정확히 관리해 나간다. 서술자가 이상적으로 늙는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301호’는 직업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서재의 많은 책과 낮 동안 일을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때 이정호 작가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작가라는 직업인답게 사회적인 사건이나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보인다. 노년의 삶을 현재와 미래적 가치에 집중해 꾸려 나간다. 이런 모습은 ‘노인정’의 다른 여성 노인들에게 특이한 인물로 비춰지며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혼자서 독립

33) ‘존재는 스스로를 초월하면서 확립’되는데 ‘노년은 초월이 죽음에 부딪침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자기 존재의 기반으로 다지려고 한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 앞의 책, p. 521)

34)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개념은 1986년 미국 노년사회학회 연례회의에서 처음 소개된다. 노년학자들은 삶의 질, 안녕, 복지, 생활 만족도, 인생만족, 행복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성공적 노화의 다양한 요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노후생활 준비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관심 있는 분야에 용기를 내는 행동들이 그러하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항상 위축되어 있는 노년의 일상적 삶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한 자세를 보인다. ‘301호’의 노후 생활은 늙음은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시선에서 오는 것임을 보여준다.

‘301호’는 노후 생활의 롤 모델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통합적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의 양상³⁵⁾을 재현해 낸다. 그는 친구가 신체적 노화로 인해 자주 건망증을 보이고 심지어 외출 시 다른 신발짝을 신고 외출하는 등 치매가 걸린 것 같다고 좌절하자 긍정적 시각으로 신체적 변화를 받아들일 것을 조언한다. 노화를 자연스러운 삶의 연장으로 받아들일 것을 설명한다. 또한 티비와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현 사회의 여러 상황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유지해 나간다.

이런 노후 생활에는 혼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해나가지만 사회 안에서의 단절감이나 고독감 같은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노년의 다양하고 풍부한 삶 속에서 만족감과 적응력의 높은 수준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노년의 삶은 ‘301호’의 시각으로 대변되는 노후 생활에 있어 잘 나이 들기 즉, 성숙한 노화, 행복한 노화, 긍정적 노화³⁶⁾라는 관점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선 성공적 노화는 논의 자체가 가치 개입적이고 규범적이라며 근본적인 비판³⁷⁾을 하는

35) 건강, 경제, 자립 등의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자율과 자신의 발달을 꾀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개인성장, 몸과 마음의 안락한 생활, 부모나 배우자로서의 역할 완수,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이에 맞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자아수용, 타인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생활인 봉사 등을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인으로 본다. (박경란, 이영숙,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노년학》, 22권 3호, 2002.) Rowe와 Kahn(1987)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6) 정영숙, <한국여성노인의 잘 나이들기: 성숙한 노화 개념의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집, 2011.

37) 한경혜, <신노년층 문화와 성공적 노화>,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0.

이들도 있다. ‘301호’와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정’의 여성 노인들을 주변화하고, 노화에 따른 상실의 복합적인 의미에 대해 방관하며, 지나치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같은 중산층에 속해 노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공적 노화의 표상인 ‘301호’와 ‘노인정’의 할머니들을 오랜 세월을 걸쳐 살아온 상황과 경험, 그리고 지배적인 고유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여야 함을 말한다.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최근 거론되고 있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이 작품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노인정’의 여성 노인들은 서양 노인들의 개인적 성장에 기반한 노후 생활이 아닌 자녀 세대 및 손자녀 세대와의 가족 관계를 통한 노후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 노년의 시대적 문화적 경험이 그들의 노화와 노후생활을 형성하는 과정³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노인들은 가족 관계 안에서 자기완성을 지향하고, 자식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음을 작품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4. 맺음말

작가 이정호는 늘 당대의 현실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노년기를 맞아서도 우리 사회의 노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창작활동으로 구현해 나갔다. 《노인정 산조》는 작품의 생산 주체와 객체란 측면에서 노년소설의 범주에 부합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는 노년의 인물들이 작품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으며 노년 여성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노년 문제를 형상화 하였다. 특히 작품에 초점화자로 등장하는 ‘301호’란 인물을 통해 작가는 주체화된 시선으로 자신의 노년의 삶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노인정’에 모이는 노

38) 이준우, 이현아, 황준호, <한국 노인의 노후 생활에 관한 인식>, 《한국노년학》31권 3호, 2011, p. 715.

년 여성들의 삶을 관찰하고 대상화하면서는 그들과는 구분되는 ‘타자화된 시선’을 드러내었다.

외견상 도시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계층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 노인들이지만 그들의 실질적 삶을 들여다보면 노인의 호칭, 가족과 세대 간의 갈등, 신체적·심리적 노화, 경제적 자립, 성공적인 노후 생활 등의 문제에 있어 여성 내부에서도 차별적인 담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년 여성의 문제들이 작품의 주요한 서사골격을 이루며 한국 사회의 노년 문제를 복합적인 층위에서 노출하고 있었다.

반면, 노년 여성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노년 문제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다보니 현상적 나열로 그려진 감이 없지 않았다. 노년 여성의 삶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선 노년 고유의 심리나 의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작가는 노년 여성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현 노년의 삶을 과거의 시간까지 포함하여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으로 살펴보는 데 부족한 면을 보여주었다.

<참 고 문 헌>

- 권영민. 2004.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교성 외. 2008.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
- 김미애. 2004. <60세 이상 인구의 명칭에 대한 대학생의 평가적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제24권1호.
- 김수영 외. 2009. 《노년사회학》. 학지사.
- 김윤식. 1994.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정석. 2003. <노후 생활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인구학》 제26권 제1호.
- 김정석·김승은. 2012. <남녀 노인의 노년시작 인식 연령과 노인 인지>. 《한국노년학》. 32권1호.
- 박선애. 2010. <이정호의 《움직이는벽》에 나타난 기억의 구성방식>. 《우리어문연구》 36권.
- 박선애. 2007.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연구시리즈 95 이정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

상.

- 양순미·임춘식·오윤자. 2007. <농촌 노인의 우울에 관련 변인이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41호.
- 이정호. 2006. 《노인정 산조》. 도서출판 계간문예.
- 이준우·이현아·황준호. 2011. <한국 노인의 노후 생활에 관한 인식>. 《한국노년학》 31권 3호.
- 이재선. 1991.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 전홍남. 2011. 《한국현대노년소설연구》. 집문당.
- 정경희 외.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미숙. 2012. <박완서 소설과 ‘아파트’ 표상의 문학사회학>. 《현대문학이론연구》 49권.
- 정영숙. 2011. <한국여성노인의 잘 나이들기: 성숙한 노화 개념의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집.
- 정진웅. 2011. <노년 호명의 정치학>. 《한국노년학》 31권3호.
- 통계청. 2009.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통계청사회통계국.
- 한국현대소설연구회. 1994. 《현대소설론》. 평민사.
- 한용환. 1992. 《소설학 사전》. 고려원.
- 르네웰렉, 김병길 역. 1988. 《문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 시몬느 드 보부아르, 홍상희·박혜영 역. 1994. 《노년》 1.2. 책세상.

* 이 논문은 2012년 10월 30일에 투고되어 2012년 12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12월 22일 편집위원회를 통해 게재가 결정되었습니다.